

# 함경북도 명천의 독립만세시위와 동풍신에 관한 연구\*

이 정 은\*\*

## 국문요약

명천군은 한국의 한반도 동북 해안의 함경북도 동남부에 있는 군이다. 산악지대가 많은 명천군에서 1908년 하반기에 의병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다. 명천군은 또한 함경북도의 천도교와 기독교의 중심지였다. 함경북도 명천의 만세시위는 한국의 유명한 소녀 순국열사 유관순과 비견되는 ‘북한의 유관순’ 동풍신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동풍신도 15세 소녀였고, 유관순처럼 만세시위를 하다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했다. 명천에서는 3월 15일 5천 명이 큰 시위를 벌였다. 시위 그 자체로서도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논문이 나온 적은 없다. 관련 자료도 별로 없다.

1919년 3월 15일 시위는 다음과 같다. 오전 9시경 명천군 하가면 포항동, 용포동, 평촌동 지방의 주민 300여명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외치며 하가면 화대시장으로 몰려오고, 여기에 남산동 등의 주민 약 800명을 비롯하여 가깝고 먼 동리에서 5천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다. 함경북도 최대의 만세시위 규모였다. 하가면 면장은 주민들의 독립의지를 비웃으며 질책했다. 주민들은 그런 면장을 구타하고, 면사무소를 방화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다. 동민수(董敏秀)는 하가면 지명동(池明洞)에 사는 농부였다. 그의 성 광천 동(董)씨는 한국에서 흔한 성이 아니다. 시조는 중국 전한(前漢) 무제(武帝) 때 유가(儒家) 사상으로 중국을 통일한 동중서(董仲舒)이다. 동씨의 집성촌으로서 전국에 4개 동리가 대표적이는데, 그중 2곳이 함경북도 명천군 하가면 성구동과 둔전동이다. 동민수는 몸이 불편하여 늘 병상에 누워 있었다. 3월 15일 자기 동리 인근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동포들이 일인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제야 죽을 자리를 얻었구나.”하며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새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3km나 떨어진 화대장터까지 달려가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동민수에게 16세 된 딸 풍신(豊信)이 있었다. 동풍신은 아버지의 피격

논문투고일: 2021.12.09. 논문심사일: 2021.12.09. 게재확정일: 2021.12.17.

\* 본 논문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힘.

\*\* (사)3·1운동기념사업회 회장.

소식을 듣고 소복단장을 하고 머리 풀어 호곡한 다음, 화대 시위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목놓아 울다가 결연히 일어나 목청이 찢어질 듯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헌병분견소 앞으로 나아가 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선도했다. 그녀는 불잡혀 함흥감옥을 거쳐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었다. 일본경찰은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수감자를 시켜 그녀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 소식을 전했다. 동풍신은 그 소식에 식음을 전폐하다 옥중에서 숨졌다. 명천에서는 3월 15일 5천 명의 화대시위 이후 그해 6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명천군은 함경도 최고의 독립정신의 고장으로 17세 소녀 동풍신의 죽음으로 더욱 기억되어야 할 고장이 되었다.

주제어: 명천군, 3·1운동, 시위, 동풍신, 서대문형무소, 유관순, 여성애국자, 순교자

목 차

I. 머리말	2. 하가면 화대 만세시위
II. 명천군의 지역적 배경	V. 동민수 동풍신 부녀
III. 함경북도 시위의 경향과 명천	VI. 계속되는 만세시위
IV. 명천의 만세시위	VII. 맺음말
1. 3월 10일 전후의 움직임들	

## 1. 머리말

명천 만세시위는 함경북도 만세시위를 대표할 만한 크고 치열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명천 만세시위에 대해 학문적 관심이 기울여지지 못하였다. 필자는 몇 년 전 순국선열유족회의 월간 『순국』에 명천 만세시위를 다룬 적이 있다.<sup>1)</sup> 특히 명천 만세시위는 16세 소녀동풍신이 참여하여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유관순으로 이야기된다. 명천 만세시위 자체가 큰 시위이며, 거기다가 북한의 유관순으로 이야기 되는 동풍신이 관계되는 시위운동이기 때문에 논문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1차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풍신에 관한 자료가 예상한 것만큼

1) 「명천 독립만세시위운동과 동풍신」, 『순국』 2018. 10.

많지 않았다.

## II. 명천군의 지역적 배경

명천군은 함경북도 동남부에 있는 군으로<sup>2)</sup>,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경계 부분에 동해 쪽으로 복사뼈처럼 뿔뿔 튀어 나온 부분이 명천군이다.<sup>3)</sup> 동해 바다에 돌출해 있고 서북부는 개마고원과 함경산맥의 지맥들이, 동남부 또한 칠보산맥이 북동에서 남서로 뻗어 있어 군의 많은 부분은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산악이 많고 길주-명천 지구대를 경계로 칠보산맥 덩어리가 동해안으로 특 튀어 나온 지역이어서 원산-함흥에서 청진-나진으로 통하는 평라선 철도나, 길주에서 혜산을 연결하는 혜산선, 또는 길주에서 무산으로 가는 함복선이 명천 서북 끝만 살짝 거쳐 지나가는 까닭에 군의 대부분이 철도 및 7번 국도 간선망에서 소외되어 명천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이름나 있다.

산지가 많음에도 길주(吉州) 남대천의 하구에서 어랑천(漁郎川) 하구에 이르는 길이 약 80km, 평균 너비 약 20km의 북북동에서 남남서 방향의 길주-명천 지구대가 평야를 형성하고 있어 총 농경지는 4만 8581ha, 경지율은 총넓이의 23.3%로 함경북도에서 가장 높다. 그 가운데 논은 62.65km<sup>2</sup>로 총경지 면적의 13%에 지나지 않으며, 밭은 423.15km<sup>2</sup>로 87%에 달하여 밭농사가 활발하다. 칠보산 줄기가 해안 쪽으로 몰려 있어 군 북쪽 경성군 어대진(漁大津)부터 동남단의 무수단(舞水端)에 이르는 106km의 해안선은 툽날같이 굴곡지고 해안은 절벽의 해식을 이룬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지는 곳이다. 그런 해안 지력 때문에 군에 큰 항구는 없다.

2) 명천군은 1952년 본래 길주군 동해면과 명천군 하고면·하가면·상가면(10개리), 상고면(1개리)을 분리·통합하여 화대군을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핵심현장으로 유명한 풍계리는 길주군에 있으며, 미사일 발사지인 무수단리는 화대군 해안 가까이에 있다. 화대군 [花臺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명천에 관하여 지금까지 주로 농민운동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져 왔다. 신주백, 1930년대 혁명적 노농운동의 조직문제에 관한 한 연구, 범태평양노동조합과 명천군 농민조합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7, 역사문제연구소, 1989. 飛田雄一, 明川農民組合の展開—1934~1937年の赤色農民組合の事例—, 朝鮮民族運動史研究會, 1988. 飛田雄一, 明川農民組合の活動, むくげ通信 85, むくげの會, 1984. 김영숙 김희일, 「비판 및 서적해제 : <1934~1937년 명천 농민들의 혁명적 진출>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의견」, 『력사과학』, 1959. 김영숙, 「1934~1937년 명천 농민들의 혁명적 진출」, 『력사과학』, 1958.



역사적으로 고대 숙신(肅愼)-읍루(挹婁)-에맥(濊貊)-옥저(沃沮)-부여(夫餘) 등 여러 부족 국가의 지역이었다. 고종의 최측근 이용익(李容翊)이 명천군 상가면 출신이다. 그는 고종의 총애를 받아 내장원정군부대신·탁지부대신·서리 등 중책을 역임하였고, 한일의정서에 반대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망명 중 암살되었다.<sup>4)</sup>

4) 명천 출신 이용익에 대한 연구논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원장·조익순, 『고종황제의 충신 이용익의 재평가』, 해남 2002-03-00.  
 吳蓮淑, 大韓帝國期 李容翊 研究, 단국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李勳愛, 忠肅公 李容翊大臣의 經國入門活動에 관한 研究, 경기대학교 논문집 28집, 경기대학교, 1991.  
 李勳愛, 內藏院卿 李容翊大臣의 經國活動에 관한 研究, 경기대학교 논문집 29집, 경기대학교, 1991.  
 廣瀨貞三, 李容翊의政治活動 1904~07年について—その外交活動を中心に—,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5, 朝鮮史研究會, 1988.  
 羅愛子, 「李容翊의 貨幣改革論과 日本第一銀行券」, 『韓國史研究』 45, 한국사연구회, 1984.

1914년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구역 재편에 따라 경성군으로부터 서면과 동면을 받고, 이전의 상우면을 상우북면과 상우남면으로 분할하여 10개 면을 관할하는 군으로 확장되었다.

애국계몽운동기 교육구국운동으로, 1900년 경성군 경성 읍내에 창설된 관북 최초의 개화 교육기관 함일학교(咸一學校)가 설립되어 그 영향을 받아, 1906년 전후 당시는 경성군에 속했던 동면에 김병윤(金秉胤)이 설립한 광진학교(廣進學校), 이남재(李南裁)가 설립한 명승학교(明昇學校), 박영환(朴榮桓)이 설립한 남송학교(南松學校)가 있었고, 서면에는 김윤중(金潤重)이 설립한 우동학교(霧東學校), 김병하(金丙夏)가 설립한 양화학교(良化學校), 임헌중(任憲重)이 설립한 명동학교(明東學校) 등이 있었다.

1907년에는 보성학교(普成學校 : 지금의 고려대학교)의 창시자 이용익(李容翊)의 손자인 이종호(李鍾浩)가 고향인 상가면 양촌에 보흥학교(普興學校)를 세워 초·중등교육을 시작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함경북도 여러 고을 군수를 지내고 귀향한 김병륜(金柄胤)이 자신의 고향 상우남면 마전동에 사재를 털어 광동중학교(光東中學校)를 설립하여 교육구국운동을 펼쳤다.

이들 학교에서 많은 항일운동가들이 배출되어, 일제가 이른바 불온사상의 온상지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명천군에는 우시장이 각 면에 발달하여 있는데 동면의 극동시장(極東市場), 상우남면의 우사장시장(霧社場市場), 아간면의 황곡시장(黃谷市場), 하가면의 화대시장(花臺市場) 등이 유명하다. 군내 남부의 곡창지대와 어업 기지인 사포항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하가면 화대시장은 군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다. 매 1일과 6일에 열리는 5일장인 가축 시장에서는 축우를 비롯하여 돼지·닭 등의 매매가 성하며, 일반 시장에서는 각종 곡류와 수산물이 집산되어 크게 발전하고 있다.<sup>5)</sup> 명천군 하우면 읍내동에 있는 명천읍내시장은 매월 4, 9일(월6회) 열리는데, 1917년 조사에서는 격월로 4, 9일 열리는 것으로 나타난다.<sup>6)</sup>

나에자, 光武年間의 貨幣改革論 研究-李容翊의 改革企圖를 中心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5) 이상의 명천군의 개괄적 상황은 「明川郡」,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참고하였음.

6) 度支部司稅局, 『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查書』, 1909년 9월 ; 朝鮮總督府, 『朝鮮地誌資料』, 1919년 ;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朝鮮經濟雜誌』 165, 1929년

명천군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말 의병운동이 치열하게 일어났다는 점이다. 간단히 일제시기 연표를 통해 살펴보아도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나오는데, 기습과 교전 등의 격전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1908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 1908. 03. 21. 明川 의병 17명, 鏡城郡에서 우체인 소지품 압수.<sup>7)</sup>
- 1908. 09. 03. 의병 200여명, 함북 明川 공격. 토벌대와 5시간 교전.<sup>8)</sup>
- 1908. 09. 09. 의병 70여명, 함북 明川 北方 약 60리 內田場에서 명천수비대 토벌대와 교전.<sup>9)</sup>
- 1908. 09. 19. 의병 50여명, 함북 明川 七班洞부근에서 토벌대와 교전. 의병 3명 전사.
- 1908. 09. 함북 明川서 의병 약 200명, 日軍수비대와 교전.<sup>10)</sup>
- 1908. 09. 의병 50여명, 함북 明川 七班洞부근에서 토벌대와 교전.<sup>11)</sup>
- 1908. 09. 大韓協會 鏡城支部員 李昇達 등 20여명, 明川군 기습.<sup>12)</sup>
- 1908. 10. 노령의병, 국내침투작전 일환으로 함북 명천지역에서 약 550명이 기습공격.<sup>13)</sup>

이상에서 명천지역은 한말 애국계몽운동에서도, 의병항쟁에서도 두드러진 치열성을 보여 주어 1919년 3·1운동 때 대규모 치열한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 토양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함경북도 만세시위에는 기독교도 및 천도교도의 역할이 컸다. 지방별로 대별하면 성진(城津)·회령(會寧)·청진(淸津) 방은 기독교도가 주이며, 길주(吉州)·화대(花臺)·**명천(明川)**·수성(輸城) 지방은 천도교도에 의하여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 지방은 함경북도의 천도교 세력 중심지이다.<sup>14)</sup> 당시의 천도교와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9월 ;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經濟月報』 275, 276, 1938년 12월, 1939년 1월.

7) 『한국독립운동사자료』 9, 국사편찬위원회, 473쪽  
 8)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9, 국사편찬위원회, 135쪽  
 9)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9, 144쪽  
 10) 『한국정치경제학사전』 ; 원호처, 『독립운동사』 1.  
 11) 『황성신문』, 1908. 9. 19.  
 12)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3, 187쪽  
 13)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201쪽  
 1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1운동자료집』 6, 625쪽

다음과 같다.<sup>15)</sup>

<표 1> 함경북도 천도교 현황

명칭	위치	교인수			비고
		남	여	계	
천도교 경성군교구	경성군 용성면 수성동	361	383	744	
천도교 성진군교구	성진군 성진면	73	15	88	
<b>천도교 하평동교구</b>	<b>명천군 하우면</b>	<b>90</b>	<b>72</b>	<b>162</b>	
천도교 길주군교구	길주군 길성명	264	191	455	
천도교 종성교구	종성군 풍곡리	11	-	11	
계		799	661	1,460	

자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1운동』 2, 635-628쪽

<표 2> 함경북도 기독교 상황

명칭	위치	교도수			비고
		남	여	계	
<b>황곡교회당</b>	<b>명천군</b> 아간면	32	35	67	캐나다북장로파
<b>용암예배당</b>	<b>명천군</b> 아간면	19	17	36	캐나다북장로파
<b>와현동예배당</b>	<b>명천군</b> 상가면	51	53	104	캐나다북장로파
<b>자기동예배당</b>	<b>명천군</b> 상가면	14	9	23	캐나다북장로파
<b>하내포예배당</b>	<b>명천군</b> 상우남면	5	6	11	캐나다북장로파
<b>읍내동설교소</b>	<b>명천군</b> 하우면	21	-	21	캐나다북장로파
<b>화대예배당</b>	<b>명천군</b> 하가면	5	7	12	캐나다북장로파
회령교회	회령군 회령면	320	190	510	캐나다북장로파
옥포예배당	길주군 용평면	27	32	59	캐나다북장로파
길주예배당	길주군 길성면	15	14	29	캐나다북장로파
무산교회	무산군 읍내	32	8	40	캐나다북장로파
신암동예배당	청진부 신암포	32	31	63	캐나다북장로파
증산예배당	경흥군 호서면	30	17	47	캐나다북장로파
서포향예배당	경흥군 호서면	40	20	60	캐나다북장로파
부령예배당	부령군 하무산면	12	7	19	캐나다북장로파
중성지회	중성군 동관면	10	5	15	캐나다북장로파
성진교회	성진군 성진면	567	202	769	캐나다북장로파
학남면예배당	성진군 학남면	21	5	26	캐나다북장로파
농성리예배당	성진군 학중면	45	20	65	캐나다북장로파

15) 위 책, 625-626쪽

한동리에배당	성진군	학동면	12	-	12	캐나다북장로파
하천예배당	성진군	학동면	15	5	20	캐나다북장로파
용동예배당	길주군	동태면	20	10	30	캐나다북장로파
일본메소지스트파 기독교포교소	나남	본정	10	20	30	일본메소디스트파
	나남교회소	나남	상구정	40	35	75
경성교회소	경성		12	38	50	캐나다북장로파
웅기예배당	경흥군	웅기면	21	11	32	캐나다북장로파
웅기예배당	경흥군	웅기면	15	11	26	대한기독교
웅상동예배당	경흥군	웅기면	56	50	106	캐나다북장로파
대암예배당	경흥군	호서면	17	-	17	캐나다북장로파
온성포교소	온성		10	10	20	캐나다북장로파
영와면예배당	온성군	영와면	50	25	75	캐나다북장로파
경흥예배당	경흥		100	130	230	캐나다북장로파
고읍예배당	경흥군	경흥면	10	15	25	캐나다북장로파
계			1,686	1,038	2,724	

자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1운동』 2, 635-628쪽

위의 종교상황을 보면 함경북도내 천도교는 5개 교구였으며, 명천군에 인접한 북쪽의 경성과 서북쪽의 길주의 교세가 컸음을 볼 수 있다. 기독교는 예배당, 포교소 합하여 33개의 집회소가 있었으며, 교인수는 천도교의 약 2배였다. 명천군에서는 기독교 예배당이 한 한 면에 2개가 설립된 곳도 있었을 정도로 기독교의 전파가 활발했음을 보여 준다.

### III. 함경북도 시위의 경향과 명천

국사편찬위원회는 최근 3·1운동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D/B를 구축하여 공개했다. 이 D/B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1년 동안에 시위 또는 시위계획이나, 학생들의 동맹휴교, 상인들의 철시, 선언서나 유인물의 제작 배포 등의 활동에 관련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구축하였다. 이 D/B를 보면 전체 2463건의 사건들 중 시위는 1700건으로 전체의 69%이다. 당연하겠지만 가장 많은 숫자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건은 만세시위 계획과 관련된 345건(14%)과, 327건(13.3%)의

기타활동이다. 기타 활동은 주도 선언서 또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활동이었다. 그 외에 학생들의 휴교, 휴학 62건(2.5%), 상인들의 철시 25건(1%), 파업 3건(0.1%) 등이다.

지역별 기간별 전체 만세시위의 추세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 3·1운동의 도별 시기별 전개 추세 통계

기간 도	계	3.1	3.11	3.21	3	4.1	4.11	4.21	4	5	6	7	8	9	10	11	12
		-10	-20	-31	월	-10	-20	-30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합계	2448*	402	401	608	39	701	131	38	16	43	21	7	12	8	8	11	2
경성	100	40	4	13	3	3	3	3	4	7	4	5	3	1	1	3	1
경기	449	22	30	245	6	126	9			1	6	1	2	1			
충남	159	9	20	26	5	90	5	2					2				
충북	108	4	5	21		69	7	1	1								
강원	125	12	11	17		68	13	3		1							
전북	77	13	17	25		1	4		1	2							
전남	71	7	15	1		22	10			1					1		
경북	171	12	50	46	4	34	16	5		3					1		
경남	193	3	46	53		66	14	7		2	1		1				
황해	230	47	31	32	2	92	16	1	1	4	1	1				1	1
평남	164	121	2	10	3	7	5	4	1	1				5	1	4	
평북	209	60	17	43	1	64	6	3	1	3	3		2	1	4	1	
함남	130	35	68	8	3	5	2	1		5	3						
함북	99	3	44	12		19	8	5	1	5	2						
서간도	57	2	14	17	4	7	9	1	2			1					
북간도	68	5	18	21	3	8	1	2	3	3			2			2	
만주	1		1														
러시아	30	4	8	4	2	6	1		1	4							
중국	2	1			1												
일본	2	1								1							
미국	3	1					2										

비고 : \*시기별 합계 2448개는 D/B 전체 시위수 2463개와 다소 차이가 난다.

도별 시기별 만세시위운동 통계가 보여 주는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3월 첫주에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사회 모두에서 만세시위 또는 이와 관련된 운동이 일어났다. 함경북도에서도 3건의 시위 또는 시위관련 움직임이 있었다.
- ② 3월 21일부터 시위운동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4월 초순에 절정에 달했다.
- ③ 3·1운동은 전체 건수와 전국적 발발상황을 볼 때 5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이후에는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3·1운동의 지속 기간은 5월말로 잡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④ 독립운동의 전개 양상은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전국 각 도별 시기별 독립만세시위운동과 이와 연관된 계획, 선언서 전과 등의 활동을 전체합계는 100건 당 ● 표시 하나, 도별 통계는 20건당 ★ 표시 하나로 표시해 보았다. 여기에는 각 시기 구간에 10건 미만의 해외지역은 제외하며,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3월 4월의 수치도 제외하였다. 또한 20건 미만은 반올림하였다. 그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3·1운동의 시기별 도별 전개 추세



4월 초순 까지 지속되었다.

⑥ 3월을 전반기 4월을 하반기라고 할 때, 북한 지역 하반기의 시위는 황해도에서 치열하게 일어났다.

⑦ 경기를 제외한 남부지방에서는 충남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경남에서는 3월 중순에서 시작하여 3월말 4월 초순까지 지속되었다.

⑧ 경북은 3월 11-20일 사이, 강원도와 충북은 4월 1-10일 사이에 활발하게 일어났다.

⑨ 전북과 전남은 전반적으로 미약하게 일어났다.

⑩ 평안북도는 첫 10일 동안 강력한 시위를 벌인 후 4월 초에 다시 한 번 강력한 시위를 벌였다.

⑪ 경성에서는 첫주 대규모 시위를 벌인 후 지방으로 전파하고, 경성 내에서는 크게 시위운동을 이어가지 못했다.

⑫ 함경북도의 경우 3월 2째 주에 가장 많이 일어났다. 그 다음 20일 동안은 빈도수에 있어 약화되어 지속되다 끝났다. 전국에서 보면 함경북도는 전남(71건), 전북(77건) 보다는 많은 99건으로 하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을 주도한 주체에는 일반인, 기독교·천도교의 종교인, 학생층이 주력이었다. 이 사이의 상관관계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것은 각 지역의 시위 주체의 성격이 차이가 나며, 주체의 성격 차이는 시위운동의 전개양상이나 전개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를 통계와 비례관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도별 일반인 종교인 학생의 비례관계표

기간 도	총계	일반인 소계	%	종교인						학생 계	%
				천도교	%	예수교 소계	%	소계	%		
총사건	2448*	1004	41.0	288	11.8	379	15.5	677	27.3	359	14.7
경성	100	4	4.0	7	7.0	6	6.0	13	13.0	38	38.0
경기	449	201	44.8	19	4.2	51	11.4	70	15.6	61	13.6
충남	159	114	71.7	3	1.9	5	3.1	8	5.0	10	6.3

충북	108	76	70.4	3	2.8		0.0	3	2.8	8	7.4
강원	125	73	58.4	31	24.8	7	5.6	30.4	30.4	6	4.8
전북	77	31	40.3	10	13.0	4	5.2	14	18.2	11	14.3
전남	71	21	29.6	4	5.6	9	12.7	13	18.3	24	33.8
경북	171	97	56.7		0.0	30	17.5	30	17.5	25	14.6
경남	193	124	64.3	3	1.6	27	14.0	30	15.6	56	29.0
황해	230	122	53.0	29	12.6	63	27.4	92	40.0	24	10.4
평남	164	10	6.1	49	29.9	56	34.2	105	64.1	30	18.3
평북	209	8	3.8	79	37.8	81	38.8	160	76.6	7	3.4
함남	130	56	43.1	33	25.4	16	12.3	49	37.7	25	19.2
함북	99	53	53.5	7	7.1	7	7.1	14	14.2	18	18.2
서간도	57	7	12.3	2	3.5	6	10.5	8	13.8	10	17.5
북간도	68	5	7.4	9	13.2	10	14.7	19	27.9	4	5.9
러시아	30	2	6.7			1	3.3	1	3.3	2	6.7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DB

아래의 표에서 보면 평북과 평남, 북간도의 경우 절대 다수가 종교인(기독교인+천도교인)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충북과 충남의 절대다수는 비종교인인 일반인이 주도했다. 학생층이 가장 주도적이었던 지역은 경성, 서간도, 전남으로 나타난다. 그럼 함경북도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함경북도의 경우는 전체 99건 중 일반인이 53건으로 53.5%, 학생층이 14건으로 14.2%, 종교인이 7건으로 7.1%를 차지하여 종교인 시위의 비중이 약한 지역으로 나타난다. 이런 함경북도 전체적인 경향을 참고하면서 명천 만세시위를 보기로 하자.



## IV. 명천의 만세시위

### 1. 3월 10일 전후의 움직임들

“길주(吉州)·화대(花臺:명천군 하가면)·명천(明川: 명천군 하우면)·수성(輸城:경성) 지방은 천도교도에 의하여 소요가 야기되었는데, 이 지방은 본도에서 이 종교의 세력 중심지이다.”<sup>16)</sup>

함경북도에는 천도교 경성교구(교인 744명), 성진교구(88명), 길주교구(455명), 명천의 파평동교구(162명), 종성교구(11명)가 있었다. 이들 중 교세가 미미한 종성교구를 빼놓고 경성, 성진, 명천, 길주는 한반도 지도의 토끼귀의 중간 특 튀어 나온 부분에 서로 이웃해 있는 군들이다.

1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1운동자료집』 6, 625쪽.

3월 9일 이웃 경성군 용성면 수성동의 천도교 경성 대교구에서 만세시위 준비를 시작했다. 아마도 길주 명천에도 이와 같은 시기에 만세시위 준비에 들어갔을 것이다. 3월 12일부터 이 지역 경찰과 헌병대에서 올려보내는 전문들에 긴장감이 묻어나고 있었다.

“5월 11일과 14일은 明川邑內와 부근 각 동에 걸쳐 독립신문과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자가 있었음.”<sup>17)</sup>

“3월 12일 함북 임명(臨溟:길주군), 명천(明川), 회령(會寧)은 불온한 상태다.”<sup>18)</sup>

“3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정오까지 정황, 함경북도 방면. 임명(臨溟), 길주(吉州), 명천(明川), 회령(會寧)에서도 불온한 상황이 있으나 아직 출병(出兵)에 이르지는 않음.”<sup>19)</sup>

3월 12일 길주 읍내 장터에서 1천 명의 군중이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 소식이 천도교인이나 장꾼, 주민의 입을 통해 명천 교인과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되었을 것이다.

3월 14일 함경북도 도장관 간바야시 게이지로(上林敬次郎, 1867~미상)는 총독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전보를 친다.

“길주(우편)국 소인이 찍혀 명천군수 앞으로 “관(官)을 사직하고 쫓기에 참가하리”는 뜻의 협박장을 보낸 사람이 있음. 발송인은 대한독립협회임. 또 성진군수 앞으로도 성진(우편)국 소인으로 “사직하라”는 협박장이 왔고, 발신인은 대한국독립회관 특파원임. 수배하며 경계 중.”<sup>20)</sup>

3월 10일 이 지나면서 한반도의 북쪽 끝부분 함경북도 지역에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이와 함께 긴장이 날로 더해가고 있었다.

17) 도장관보고철 7책, 地方騷擾ニ關スル件, 秘第250號, 朝鮮總督府 內秘補 1217, 1919-06-03; 1919-06-10.

18)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1책, 朝鮮의 獨立運動에 關한 件, (密受第102號, 陸密第86號).

19) 위와 같음.

20) {電報 : 明川等ノ萬歲示威}, 1919-03-14; 1919-03-14; 함경북도 장관이 조선 총독에게 보낸 1919년 3월 14일자 보고 전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제2권, 1966, 782쪽

## 2. 하가면 화대 만세시위

길주군에서 명천과 성진으로 보내는 관공리 사직권고서는 이 지역 시위운동 시작을 알리는 봉화였다. 그러나 명천군의 만세시위는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

1919년 3월 15일 오전 9시경 명천군 하가면 포항동, 용포동, 평촌동 지방의 주민 300여명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외치며 하가면 화대시장으로 몰려오고, 여기에 남산동 등의 주민 약 800명을 비롯하여 가깝고 먼 동리에서 5천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다. 함경북도 최대의 만세시위 규모였다.

시위대의 하가면 포항동 박승룡(朴承龍, 23세, 농업, 일명 : 승훈), 성구동의 최계락(崔啓洛, 27세, 농업)·지명동의 허을(許屹, 35세, 농업)·허영준(許英俊, 28세, 농업)·김성련(金成鍊, 31세, 농업)·김익련(金益鍊, 29세, 농업)·허현(許鉉, 41세, 농업) 용포동의 김세한(金世漢, 36세, 농업)은 하가면 사무소로 몰려가서 면장 동필한(童弼漢)에게 함께 만세를 부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면장은

“주책없이 굴지 말고 해산하라.”

고 위압했다. 이에 군중은 크게 분개하여 면장 동필한을 구타했다. 면장 동필한이 현병(순사) 등의 구조를 받아 화대동 김동영(金東映) 집으로 피신했다. 군중이 뒤쫓아 가서 그 집 문짝을 차고 면장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군중은 더욱 기세를 올리고 면사무소와 면장 사택 등을 불태우는 등 기세를 떨쳤다.<sup>21)</sup>

명천주재소 현병[순사]들이 발포하여 동민수(董敏秀) 등 5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남자 9명 여자 2명 등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명천군 하가면 화대리에 현병주재소로 일제 보고자료에 나오나 화대에는 현병분견대가 없고 경찰관주재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sup>22)</sup>

시위대가 일시 흩어졌으나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명천에 사는 일본인 약 20명은 현병[경찰관] 분견소 안으로 피난하여 재향군인을 중심으로 군도, 권총

21) 하가면 포항동 박승룡 등 판결문, 판결 대정 8년 형공(刑空) 제784·803호.

22) 국사편찬위원회, 3·1운동 D/B.

등을 휴대하고 시위대에 대비하는 한편, 급히 길주 헌병분대에 증원을 요청했다. 기병 27연대 소대장 히라이(平井) 중위는 동해면 용원의 급보를 받고 이른 아침 기병대 하사 이하 10기(騎)를 이끌고 용원으로 출동하여 없었고, 남아있던 모리모토(森本) 기병군조(騎兵軍曹)가 기병 13명을 이끌고 급히 달려 3월 15일 밤 10시 화대에 도착하였다.

그날 밤 기병대 모리모토 군조는 헌병경찰과 협력하여 무단적 수단으로 진압할 방침을 정하고 기병들에게 말에 탄 채 경계를 세웠다. 시위대원 1명이 일본군이 집결해 있는 헌병[경찰]분견소 뒤쪽으로 잠입하여 기회를 엿보며 방화하려 했다. 기병 4명이 달려들어 체포, 연행하는 데 도중에 달아났다. 기병들이 추격하여 칼등으로 머리를 쳐 부상을 입혔다.<sup>23)</sup>

일제가 살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도 일제가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보면 다음과 같은 보고가 이어진다.

폭도들은 또 다시 면사무원의 사택에 방화하고, 3명의 婦人은 불을 끄려고 하는 다른 조선인을 제지했을 뿐 아니라 기병이 저들을 포박하려고 했더니 흉기(조선인이 사용하는 길이 약 20cm의 식칼)를 휘두르며 반항하였으므로 부득이 그 2명을 상해하였다(관계자 기병 상등병 1명, 기병 병졸 1명, 헌병 1명). / 花台洞의 조선인은 어제 16일[15일의 오기가 아닐까?] 이래 모두 북방 高地에 집합해 있었으므로 이를 해산시킬 목적으로 척후를 각 집단으로 보냈다. 그 중 약 200의 한 무리 중 2~30명의 장정들이 거만하게 버티고 한 사람은 척후를 향해 투석하였으므로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 그를 찔렀다.<sup>24)</sup>

## V. 동민수 동풍신 부너

이 날의 시위에서 피살된 동민수(董敏秀)는 하가면 지명동(池明洞)에 사는 농부였다. 그의 성 광천 동(董)씨는 흔한 성이 아니다. 시조는 중국 전한(前漢)

23) 朝鮮騷擾事件의 死傷數 件 報告, 密受第102號其458; 朝副第941號, 1919-10-02; 1919-09-29.

24) 위와 같음.

무제(武帝) 때의 유학자요 관리로서 오경박사(五經博士)를 두는 등 유가(儒家) 사상으로 중국을 통일한 동중서(董仲舒)로서, 동중서의 고향인 중국 허베이성 [河北省] 광촨현(廣川縣)을 관향으로 하고 있다.<sup>25)</sup> 또한 동씨의 집성촌으로서 전국에 4개 동리가 대표적이는데, 그중 2곳이 함경북도 명천군 하가면 성구동과 둔전동이다. 나머지 2곳은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정동양리와 함북 단천군 복귀면 용연리이다.

동민수는 몸이 불편하여 늘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는 시위에서 동포들이 일인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를 가누지 못하였다.

“사람이 한번 났다가 의를 위하여 몇몇이 목숨을 바쳐야 하거늘, 이렇게 골골하다가 병상에서 죽다니……”

하고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던 차에 다시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야 죽을 자리를 얻었구나.”

하고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새 옷으로 갈아입고 집에서 3km나 떨어진 화대장터까지 달려갔다. 그는 운집한 시위 군중에 앞장을 섰다. 그는 일본군의 빗발치는 탄환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서다가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sup>26)</sup>

그가 피살되었다는 소식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16세 된 둘째 딸 풍신(豊信)은 아버지의 비극적인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키가 훗칠하고 눈동자가 빛나며, 효성이 지극한 소녀였다. 정신을 가다듬고 소복을 하고 머리 풀어 호곡한 다음,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결심하고 화대로 달려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시체를 부여안고 목 놓아 울었다. 이윽고 눈물을 닦고 일어나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헌병분견소 앞으로 나아갔다. 헌병의 발포로 흩어져 골목에 몸을 숨기고 있던 군중들도 동풍신을 보고 다시 시위대열을 정돈하였다. 이 때 군중들 사이에는 누가 발설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면장이

25) 광천 동씨 대동보, 상권, 2쪽, 성씨 정보 [http://www.surname.info/dong/gwang\\_cheon.html](http://www.surname.info/dong/gwang_cheon.html).

2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2, (3·1운동사, 상), 751쪽

일본군을 불러 들였다는 말이 나돌았다. 동풍신을 위시한 군중들은 다시 면사무소로 몰려갔다. 시위대는 면사무소와 면사무원 사택에 방화했다. 기병이 달려들어 포박하려고 하자 식칼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기병 상등병 1명, 기병 병졸 1명, 헌병 1명이 달려들어 처서 쓰러뜨렸다.

동풍신을 비롯한 시위대 선도자들은 체포되고 군중은 해산당하였다. 동풍신은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서대문형무소에 이감되었다. 일본경찰은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화대의 화류계 출신 모 여인을 그의 감방에 넣었다. 그 여자는 일인이 시키는 대로 동풍신에게 이런 거짓말을 하였다.

“풍신아, 너의 어머니는 내가 잡혀간 뒤에 혼자서 외롭게 지내면서 밤낮으로 애태우다가 너무 상심한 끝에 실신하여 너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을 떠났단다.”

이 말을 들은 풍신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도 그는 식음을 끊고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는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17세의 꽃다운 나이로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다.<sup>27)</sup>

다음날인 3월 16일 새벽이 되었다. 명천 하가면 화대시장 시위대는 일제의 인명 살상에 분노하여 해산하지 않고 공격의 기회를 엿보며 북쪽 고지대에 모여 있었다. 일제는 이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척후를 각 집단으로 보냈다. 그 중 약 200의 한 무리 중 2~30명의 장정들이 늘어서 있고, 그 중 한 사람이 척후를 향해 돌을 던졌다. 이에 일본군 기병대가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 그를 찼다.

花台洞의 조선인은 어제 16일[15일의 오키로 보임] 이래 모두 북방 高地에 집합해 있었으므로 이를 해산시킬 목적으로 척후를 각 집단으로 보냈다. 그 중 약 200의 한 무리 중 2~30명의 장정들이 거만하게 버티고 한 사람은 척후를 향해 투석하였으므로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 그를 찼다. 요컨대 花台洞에서는 吉州 부근에서 폭동이 가장 심하여 면장, 면사무원을 구타하고 면사무소, 면장사택을 불태웠으며, 그 수가 약 5,000에 달하여 세력이 맹렬하였다. 최후에는 헌병 및 일본인에게도 위해를 가할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기병의 도착으로 결행을

27) 김성덕(金盛德), 『함북대관』, 서울, 398~399쪽, 위 『독립운동사』 2, (3·1운동사, 상), 751쪽

주저한 것 같다. 밤이 되자 조선인은 山地에 집합하고 인심이 자연 시끄러워져 다시 일어날 우려가 없지 않았다. 따라서 기병은 헌병과 협력하여 在住 일본인(약20명)을 안전하게 하고 폭동을 진압하려면 다소 희생자를 내더라도 어쩔 수 없음을 자각하고 생명에 위험을 미치는 총기의 사용을 금하고 위협 위주로 군도를 사용하였다. 상황이 그와 같았으므로 부득이했다고 인정된다.<sup>28)</sup>

## VI. 계속되는 만세시위

3월 15일 같은 날 명천군 상가면 낙동동 최명극(崔命極, 39세, 농업)은 자신도 만세시위를 벌이고자 3월 15일 자기 집에서 태극기를 제작하여 집 앞에 세우고 동민 약 10명을 불러 모아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거둬 불렀다.<sup>29)</sup>

3월 16일에는 아간면(阿間面) 시장에서 군중 약 4백여 명이 집합하여 시위할 기세를 보이자, 군 출장원 면리원(面吏員) 헌병 등이 출동하여 해산시켰다. 밤까지 긴장이 계속되었다.<sup>30)</sup>

3월 17일 오후 4시경 상고면 보촌동에 사는 장약운(張若雲)과 김동을(金東乙) 등이 보촌학교 학생 50여 명과 중평(仲坪) 동민 1백여 명을 집합시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다음 깃발을 앞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마을 안을 누비고 다녔다. 장약운과 김동섭 등은 시위대를 이끌고 이웃 마을 중평동으로 가서 그곳 사람 약 4~50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마을 안을 행진하였다.<sup>31)</sup>

3월 17일 상고면에서는 약 150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했다. 이날 장약운(張若雲)과 사립보촌학교 교장 김동을(金東乙)이 이능욱(李能勳) 등과 함께 조선독립운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대한독립이라고 크게 쓴 깃발과 태극기 각 1개를 만들었으며, 사립보촌학교 교사인 김동섭(金東燮)은 동교 학생들에게 독립운동 참가를 권유했다. 이날 오후 4시경 동민 및 학생들과 함께 보촌동 안 광장에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고, 참가자 약 20명을 선도하여 깃발을

28) 朝鮮騷擾事件의 死傷數 件 報告, 密受第102號其458; 朝副第941號, 1919-10-02; 1919-09-29.

29) 최명극 경성복심법원 판결문(1919. 6. 21).

30) 도장관보고철 2, [電報 : 明川 / 萬歲示威], 1919-03-17.

31) 朝鮮騷擾事件一覽表에 關한 件, 朝憲警 第107號, 1919-10-02.

앞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마을 안을 누비고 다녔다. 장약운과 김동섭 등은 위 일행과 함께 이웃 마을 증평동으로 가서 그곳 사람 약 4~50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마을 안을 행진하였다.<sup>32)</sup>

3월 18일 오후 4시에는 우사장(霧社場)에서 군중 약 7백 명이 집합하여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때마침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그들의 함성은 높이 울려 퍼졌다. 이들의 기세에 눌린 일본헌병들은 이들을 향하여 마구 총을 쏘았다.<sup>33)</sup>

3월 18일 상우북면 하장동에서 만세시위가 있었다. 그 이틀 전 상우남면 상장동 황완택(黃完宅)은 엄순룡(嚴舜龍)으로부터 상우남면 마전동에서 3월 18일 상우북면 하장동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를 부를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황지연(黃智淵), 박후근(朴厚根)과 그에 참가할 것을 합의하고, 자신의 집에서 태극기 20개를, 3월 17일 박후근 집에서 태극기 16개를 황지연이 제공한 한지로 제작했다. 이들은 3월 18일 정오경 하장동시장으로 태극기를 가지고 가서 일부를 군중에게 나누어주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약 800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상장동 방향으로 행진하였다. 긴급 출동한 헌병은 총기를 발포하여 조선인 2명이 즉사하고 부상자 7명이 발생했다. 명천읍에서 경찰서장 이하 10명, 보병장교 이하 5명이 급파되어 수모자 10명을 체포하였다.<sup>34)</sup>

3월 22일, 상고면에서는 최병일(崔秉一)·최주영(崔周永) 외에 수명이 운만대(雲滿臺) 선지곡(仙芝谷)에서 동민 약 40여 명을 모아 놓고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경찰은 앞장선 사람을 모조리 잡고 군중을 해산시켰다.<sup>35)</sup>

상고면 시위는 목진동(木津洞) 최동일(崔東一, 50세, 어업 겸 농업)이 조선독립을 도모할 계획을 갖고 전날 목진동에서 최주영(崔周永) 외 다수의 동민에게 위 운동에 참여를 권고했다. 다음날인 22일 최병일은 목진동 운만대(雲滿臺) 선지곡(仙芝谷)에서 자신이 직접 지휘자가 되어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동민 약 40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sup>36)</sup>

32) 張若雲과 金東乙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19. 5. 17.

33) 도장관보고철 2, 騷擾事件에 關한 狀況(3月16日~3月25日), 密受第102號其152[號]; 朝特報第8號, 1919-04 -05; 1919-03-31.

34) 黃完宅 등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1919. 5. 21.

35) 위와 같음.

4월 8일 오전 11시에는 서면 우동동(霧東洞)에서 만세시위가 있었다. 이날 사립우동학교(霧東學校) 교사 유영오(柳泳昨), 차종협(車鍾協), 김양익(金兼翼)등 3명은 4월 8일 오후 1시 우동동에서 약 500명의 동민을 모아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약 1시간 동내를 행진하다 해산했다. 다시 추진동(楸津洞)에서 군중 약 200명과, 삼기동에서 군중 약 100명과 시위행진을 하고 해가 지자 해산했다. 이튿날인 4월 9일 우동동에서 약 200명이 다시 시위운동을 일으켰다. 주모자 5명을 체포되었다. 4월 10일에도 우동동에서 시위운동을 다시 일으켰으나 바로 해산당했다.<sup>37)</sup>

4월 11일 서면 양화(良化)에서 의사 김승오(金昇五)가 주도하는 가운데 양태운(梁泰雲), 김태원(金泰元) 등이 4월 13일 서면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독립운동을 하려고 유지자들과 협의했는데, 양화동 사립학교장인 김현규(金鉉奎)와 교사 김남천(金南天) 등이 “오늘은 이러한 망동을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며 설득하여 제지했다. 그러나 “태극기만은 만들어두자”는 말에 따라 태극기를 만들어 학교에 보관했다가 일본 경찰에 발각되었다. 아마도 학교장이 밀고했을 가능성이 크다.<sup>38)</sup>

4월 14일에도 오후 2시 명천군 서면 산성동에서 약 300명이 시위를 벌였다. 일제 자료에는

“함경북도 明川郡 西面. 4월 14일 오후 2시 西面 山城洞에서 군중 약 300명이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을 立石 주재 경찰관이 면장과 함께 설득한 뒤 해산시킴.”<sup>39)</sup>

이날 서면 명남동 명동학교 뒤편의 하천가에서 姜承翰, 李鶴馥 등은 강승환의 발의로 거주지 마을 부근에서 시위운동을 할 것을 계획하고, 각자 주민을 규합하여 4월 14일 오후 1시경 명천군 서면 명남동 명동학교(明東學校) 하천가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朝鮮獨立萬歲旗와 태극기를 흔들며 약 300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절규했다.<sup>40)</sup>

36) 騷擾事件에 關한 狀況(3月16日~3月25日). 1919. 3. 31.

37) 도장관보고철 5, 地方騷擾=關スル件, 1919-05-05;1919-05-12.

38) 독립운동에 관한 건(제49보), 지방(4월 15일 오전 10시까지 정황).

39) 위와 같음.

1919년 5월 11일 아침 누군가가 명천 읍내 노상에 독립신문 제47호 및 독립선언서를 산포했다. 경찰이 급히 수습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독립신문과 [독립]선언서 배부사건은 읍내 뿐 아니라 서면 지경동에서도 배포되었다.<sup>41)</sup> 경찰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엄중한 경계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흘 뒤인 5월 14일 아침 명천군 읍내와 상우남면 마전동과 내포동에 또다시 조선독립에 관한 인쇄물이 배부된 것이 발견되었다. 일경이 이에 대한 엄중한 수색과 경계를 펼쳤다.<sup>42)</sup>

6월 명천에서는 경찰서 앞 수비대의 게시사항을 파괴해 훼손한 일도 있었다.<sup>43)</sup>

이와같이 함경북도 명천에서는 군내 시위운동의 주도체가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3월 15일 5천 명의 대 군중이 집결하여 화대시위를 전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5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또한 유관순 열사와 비견되는 동풍신도 이 지역 인물이다. 이 지역이 천도교 세력이 강했던 지역임을 감안할 때 천도교인이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연대하여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 VII. 맺음말

함경북도 명천의 만세시위는 3월 15일 하가면 화대시장에서 5천명의 군중이 만세시위를 벌이고, 주민들의 독립의지를 비웃으며 질책하는 면장을 구타로 응징하며 면사무소를 방화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했다. 하가면 지명동(池明洞)에 살던 동민수(董敏秀)는 병자의 몸으로 민족의 일원으로서 동포들이 일인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야 죽을 자리를 얻었구나.”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새 옷을 갈아입고 집에서 3km나 떨어진 화대장터까지 달려가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적의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그의 독립정신은 참으로 결연하며 숭고하다.

16세 된 그의 딸 풍신(豊信)은 아버지의 피격 소식을 듣고 소복 단장을 하고 머리 풀어 호곡한 다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화대 시위현장으로 달려갔다.

40) 姜承翰, 李鶴馥 경성북심법원 판결문, 1919. 7. 31.

41) 도장관보고철 5, 地方騷擾ニ關スル件, 1919-05-13;1919-05-19.

42) 도장관보고철 5, 地方騷擾ニ關スル件, 1919-05-20;1919-05-28.

43)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4책, 鮮內 民心一般 趨向에 대하여, 1919-08-25;1919-08-18.

그녀는 아버지의 시신을 부등켜 안고 목놓아 울다가 결연히 일어나 목청이 찢어질 듯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며 헌병분견소 앞으로 나아가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부르다 붙잡혀 함흥감옥을 거쳐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감옥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다 옥중에서 숨져 갔다.

“북한의 동풍신”이라 하여 “남한의 유관순”과 비견되는 서대문 감옥의 순국선열 동풍신에 대한 판결문을 비롯한 자료는 안타깝게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앞으로 동풍신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의 발굴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가능해 지기를 기대한다. 명천에서는 3월 15일 대시위 이후에도 6월에 이르도록 계속 일제의 지배에 저항하는 행동들이 있었다. 명천은 소녀 동풍신 부녀와 더불어 함경도 최고의 독립정신의 고장이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자료』 9, 국사편찬위원회, p. 473.
-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9, 국사편찬위원회, p. 135, p. 144.
- 김성덕(金盛德), 『함북대관』, 서울, p. 398-399.
- 김영숙·김희일(1959), 「비판 및 서적해제 : <1934~1937년 명천 농민들의 혁명적 진출>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의견」, 『역사과학』 .
- 김정숙(1958), 「1934~1937년 명천 농민들의 혁명적 진출」, 『역사과학』 .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3·1운동자료집』 6, p. 625-626.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2, (3·1운동사, 상), p. 751.
-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p. 201.
- 신주백(1989), 「1930년대 혁명적 노농운동의 조직문제에 관한 한 연구, 범태평양 노동조합과 명천군 농민조합운동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7, 역사문제연구소.
- [電報 : 明川等ノ萬歲示威], 1919-03-14; 1919-03-14; 함경북도 장관이 조선 총독에게 보낸 1919년 3월 14일자 보고 전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제2권, 1966, p.782.
- 度支部司稅局, 『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査書』, 1909년 9월; 朝鮮總督府, 『朝鮮地誌資料』, 1919년 ;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朝鮮經濟雜誌』165, 1929년 9월 ; 京城商工會議所, 「朝鮮に於ける市場取引の現況」, 『經濟月報』 275, 276, 1938년 12월, 1939년 1월.
- 飛田雄一(1984), 明川農民組合の活動, むくげ通信 85, むくげの會.
- 飛田雄一(1988), 明川農民組合の展開—1930年代の赤色農民組合の一事例—, 朝鮮民族運動史研究 5, 朝鮮民族運動史研究會.
-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1책, 朝鮮의 獨立運動에 關한 件, (密受第102號, 陸密第86號)
- 朝鮮騷擾事件의 死傷數 件 報告, 密受第102號其458, 朝鮮第941號, 1919-10-02; 1919-09-29.

## Myeongcheon, North Hamkyeong Province March 1<sup>st</sup>

### Movement and Dong Pung-shin

Jeong Eun LEE\*

#### Abstract

Myeongcheon-gun(county) is in East-southern part in North Hamkyeong Province, the northeast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In Myeongcheon-gun, where there are many mountainous areas, the righteous army movement took place fiercely in the second half of 1908. Myeongcheon-gun was also the center of Cheondogyo(天道教) and Christianity in North Hamkyeong Province. The demonstration of national independence in Myeongcheon is drawing attention due to Dong pung-shin(董豊信) who is regards as “North Korea’s Yu Gwan-soon,” a famous girl patriot and martyr. Dong pung-shin was also a girl of 15-year-old, and died in Seodaemun Prison, Seoul after protesting for national independence like Yu Gwan-sun. In Myeongcheon, 5,000 people staged a big protest on March 15. It should also be noted as a demonstration itself.

The demonstration on March 15, 1919 is as follows. Around 9 a.m. about 300 residents from Pohang-dong(洞), Yongpo-dong, and Pyeongchon-dong, Hagi-myeon, Myeongcheon-gun, shouted hurrah with the National flags at the forefront, and 5,000 crowds gathered from nearby villages, including about 800 residents of Namsan-dong. It was one of the largest demonstration in Hamgyeongbuk-do. Hagi-myeon office head(面長) laughed at the residents’ willingness to independence and rebuked them. Residents staged violent protests, beating the head of the myeon and arsonizing the myeon office. Dong Min-soo(董敏秀) was a farmer living in Jimyeong-dong, Hagi-myeon. His surname Gwangcheon(廣川) Dong(董) is not a common surname in Korea. The founder was Dong Jung-seo(董仲舒), who unified China with the idea of Confucianism during the reign of Muje(武帝), former Han(前漢, 202 B.C~8 A.D). As Dong’s clan village, two of four representative Dongs in the country are Hagi-myeon, Myeongcheon-gun. Dong Min-soo was always lying in bed because he was ill. When he heard that his compatriots were shot to death in a demonstration near his village on March 15, he jumped up from his bed, saying, “Now I have a place to die,” and changed his new

---

\* The president of March 1<sup>st</sup> Movement Commemoration Association

clothes and ran to the site of Hwadae market place, 3km away from home and participated demonstration and was shot to died. Dong Min-soo had a 15-year-old daughter, Poongshin. When Dong Pung-shin(董豊信1904~1921) heard the news of his father's attack, he dressed up in funeral clothes, unpacked her hair, cried out loudly, and ran to the Hwadae demonstration site. She held her father's body and cried, but rose resolutely and went to the military police branch to lead the protest movement by calling for independence. She was arrested and imprisoned in Seodaemun Prison, Seoul after going through Hamheung Prison. Japanese police ordered an inmate to change her mind and told her false news that her mother had passed away. Dong Pung-shin died in prison while abolishing food and beverage at the news. In Myeongcheon, there were continuous demonstrations from the 5,000 Hwadae demonstration on March 15 to June of that year. Myeongcheon-gun was the best independence spirit in Hamgyeong-do, and became a place to be remembered even more with the death of a 15-year-old girl, Dong Pung-shin.

Keyword: Myeongcheon-gun(county), March 1<sup>st</sup> Movement, demonstration, Dong pung-shin(董豊信) Seodaemun Prison, Yu Gwan-soon, girl patriot, martyr